

제5회 신행수기 당선작(천태종 총무원장상)

부처님 감로법 이제 알았네 ㉠

정 호 귀 <경북 청송군 청송교도소>

이 때부터 나는 불경도 외우고 불교사적을 보면서 불교신자들이 기거하는 종교방으로 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부처님 전에 참회하기 위해 100일 기도를 시작했다. 난생처음 해보는 108배는 결코 만만치 않았다. 절을 하자 예전에 굳 시절 다쳤던 허리 통증이 나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그러나 양초가 스스로를 태워 주위를 밝히는 것처럼 내 육체의 고통이 정신을 밝히는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어떠한 고통이라고 참아내고 말겠노라고 이를 악물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합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무사히 기도를 마칠 수가 있었다.

100일 기도가 끝나자 나는 또 다시 일을 배우고 <반야심경>을 사경하기 시작했다. 한자 쓰고 절하고 또 한자 쓰고 절하고 할 때마다 나의 눈에서는 참회의 눈물이 수없이 쏟아져 내렸다. 이와 같은 기도를 나는 교도소에서 여러 번 했다. 그리고 시간 나는대로 어머니께서 넣어준 <한마음요진>을 읽으면서 내 나름대로 마음 공부도 했다.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큰스님과의 대화 '길을 묻는 이에게' 란을 보게 된 이후부터 나의 생활 태도에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말할 것도 없다. 무슨 말 무슨 짓을 해도 입기만 하면 동료들이, 내 마음 한번 고쳐먹으니 그렇게 반갑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그때 나는 자주 쓰이고 있는 '미운 짓만 골라한다'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상대방이 미운 짓만 골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갖다보니 그가 무슨 짓을 해도 밋게 느껴지는 것이라. 이때부터 나는 내 마음속에 참나가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또한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에도 미워하지 않고 큰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탓이려니 하며 극복하고자 하였다. 내게 닥친

시고 조금이라고 속죄하며 두터운 입장을 소멸시킬 수 있다면 하는 작은 바람으로 살았다. 내가 더 노력할수록 보다 알찬 불교집회가 될 수 있었다. 이때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을 여러 불자들에게 나의 체험과 더불어 보여 줌으로써 실천하는 불교를 만들고자 했다. 우리 불교신자가 모두 내 마음처럼 밝아지고자 하는 바람으로 이 무거운 일을 시작했다.

현대불교 '길을 묻는 ...' 을 본후부터 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마음 한번 고쳐먹으니 새사람으로...

모든 경계를 회피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나를 단련시키려는 참나의 가르침으로 알고 의연하게 견뎌냈다.

이렇게 마음공부에 열심히 정진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나는 참나가 나를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체험하기 시작했다.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생활하던 나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 아직 모든 것이 부족하고 신심이 얕은 나에게 불교회장이라는 무거운 짐이 지워짐으로써 부처님의 제자로서 더욱 정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내 마음속에 더 가까이 부처님을 모

다른 도반들보다 더욱 정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새벽 3시 30분이면 일어나 잠자리를 정리한 다음 삼귀의를 시작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그 기도 내용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다. 나의 가족과 이웃, 친척 그리고 형제간에 우애를 돈독히 해달라는 것과 나를 알고 있는 사람과 과거에 나로부터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피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것. 그리고 아내에게 품었던 그 복수심과 증오심이 모두 없어져 나보다 더 나은 새 사람 만나 사랑받으

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 나의 기도 내용이다.

기도가 끝나면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면서 108배를 이어지고 이것이 끝나면 '노파소암'이라는 화두로 참선을 한다. 참선을 하다보면 아찔 기상 날아올라고 다시 함께 기거하는 도반들과 아침예불을 드리고 공장에 출역하여 일을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 일어나 운동을 할때에도 관세음보살님을 수없이 염한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방에 들어오면 여러 도반들과 함께 다시 예불문을 시작으로 저녁예불을 시작한다. 계한 정향 해향 ... 하다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약한 마음을 버리고 강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기쁨에 겨워 나의 눈에서는 서서히 눈물이 고이면서 글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와 닿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그리고 취침 전에도 반드시 기도로써 관세음보살님과 나의 대화가 이어진다.

"관세음보살님, 저는 지금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보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세음보살님, 제가 지금 불교회장을 맡고 있는데 임기 안에 합창반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에게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등등.

이렇게 모든 일들을 관세음보살님께 말씀드리고 나면 비록 이곳이 자유를 박탈당한 교도소이지만 왜 그리 마음이 편해지면서 나도 모르는 힘이 솟는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을 것이다. 꾸준히 정진하고 원을 세워 기도한다면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를 입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 이것은 나의 경험에서 오는 것이라 누구에게나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굳어 시절 다쳤던 허리가 재발해 무척 고통을 했는데 그동안 꾸준히 부처님께 기도한 공덕인지 지금은 말씀이 나왔다.

그리고 7개월 전에는 정신교육을 받는 교육장에서 교관으로 계신 남재영 부처님께서 우리 소에서 대화를 한번 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을 보면 참 편안해 보인다면서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불교회장이더라



그림 · 이준석

라는 말을 교육을 받고온 교육생들을 통해 전해들을 수가 있었다. 또 두달 전에는 청송 진성사의 주지 지공스님께서 관세음보살님의 관음의식을 갖기 위해 많은 보살님들과 함께 오셨는데 나를 소개하시는 과정에서 똑같은 내용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것은 분명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동안 나의 눈에서 살기가 돈다는 말 대신 선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인력을 세워 꾸준히 기도한 결과 부처님께서 가피를 내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이제까지 자신의 삶을 포기해 버리고 죄악과 방황에 빠져있던 한 인간이 새 사람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을 수 있지만 자기 마음의 모든 것을 근본으로 여기는 부처님의 출중한 가르침을 통해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을 가슴깊이 새기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고 공부할 것을 다짐해 본다. 남은 험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되면 한국불교대학에 입학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아직도 부처님의 감로법을 모르고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나와 같이 어두운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 감로법을 전할 수 있는 포교사가 되기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이다. 나무야하반야 바라리.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敎史料 이천만 불자의 참대변지, 수행의 길잡이 ...

현대불교신문 1999년도 합본집 발간 (50부 한정판매)

'94 ~ '99년 디지털 합본집 CD도 함께드립니다.

1999년도 한해 동안 발행된 현대불교신문의 '합본집'이 나왔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시사불교와 이해하기 쉬운 교리, 큰스님 법문, 한국문화의 중추가 되는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들에게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사찰의 스님들께는 참다운 수행의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99년도 합본집' 제5호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94년 창간호부터 1999년도 송년호까지 모든 기사와 보도사진이 수록되어 있는 '디지털 합본집 CD-ROM'을 증정합니다.

수록내용 : 1999년도 (201호~251호)
판 형 : 신문원형 그대로
가 격 : 1권 65,000원 (발송비 5,000원 포함 · 직점 구입시 발송비 제외)
입금구좌 :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023-25-0007-617 농협 063-01-227471 우체국 010041-0255243
문 의 :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8881(전), 02)737-0090(홍)

인터넷 마하몰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사찰과 그 주변을 환히 밝히고 있는
마하 반야심경 봉축등을 만나십시오.'

02) 732-1522 (직)
02) 737-8881
인터넷 주문: <http://www.mahamall.co.kr>



마하 반야심경 봉축등은...

각종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며 행사기간 내내 사찰과 그 주변을 환히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 물에 젖지 않으며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밝고, 다양한 색디자인과 단청문양은 보는 이로 하여금 불도량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야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부처님의 교설을 열심히 공부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하는 불자들의 서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주문전화 : 02)732-1522(직통)/737-8881(대표)
▶ 주문팩스 : 02)737-0697
▶ 판 매 원 : 마하몰

이 연등은 재가불자들의 구매용이 아닙니다.

마하 반야심경 봉축 조립등

<설치순서>

1. 연등의 뒷부분을 조립한다.
2. 연등의 아랫부분을 조립한다.
3. 연등을 설치한다.

■ 초코이 포함, 등걸이 철사 포함, 이음표 포함, 탁승비 별도
■ 가격 : 1,840원

※ 실용신안 번호 : 제 0160182호

마하 반야심경 봉축 접등

<설치순서>

1. 접힌 상태의 연등을 편다.
2. 내부에 접혀 있는 지지철봉을 누른다.
3. 연등을 설치한다.

■ 초코이 포함, 등걸이 철사 포함, 이음표 별도, 탁승비 별도
■ 가격 : 2,500원 (이음표 포함 2,600원)

※ 실용신안 번호 : 제 0179042호